

프안밋 이야기

2024.05

●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바람 ●



지난 3월 22일 예보도 없이 허리케인처럼 큰 돌풍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20여분간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은 지나가는 곳마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돌풍으로 학교의 이곳저곳은 구멍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유리창들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5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학교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목에 큰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어 학생들을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풍이 남기고 간 잔재들로 학교는 엉망이 되었고 제2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등학생들과 함께 힘을 합해 빨리 잔재들과 지붕 깨진 곳들을 치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개인분들과 나우병원에서 헌금을 보내오셔서 일단 복구를 시작했으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큰 재정이 필요해서 손 모으고 있었는데 오률키움에서 큰 도움을 보내오셔서 학생기숙사에 깨진 유리창과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학교 지붕을 손볼 예정입니다. 실력있는 인부들을 만나고 잘 복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크고 작게 힘이 되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라오스의 새해 ‘삐마이’라고 쓰고 물축제라 부른다!! ●



라오스는 건기 중 가장 더운 4월에 새해가 찾아옵니다. 한국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하는 풍습이 있듯이 라오스도 이날 나이가 어린사람들이 어른들을 위해 꽃을 담은 물을 조금씩 부어주며 축복의 인사를 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프안밋도 새해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유치원 학생들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긴채 같이 전통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에게 물을 뿌려가며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아잔짬빠와, 방가선생님 이야기

이번 삐마이기간동안 함께 사역하는 태국선님 '디아우' 선생님댁에 위로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와 그 곁을 묵묵히 지켜내는 아버지를 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신뢰함인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화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



건기가 되면 산에 사는 소수 종족들은 주변 산을 태워 벼를 심고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화전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년 3-5월은 하늘에서 검은 재가 내려옵니다. 덕분에 공기가 좋지 않아 두통과 알러지로 고생을 하기도 하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학교 주변 산에도 가까이에서 불이 나는 것 처럼 화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 프안밋공동체의 새생명 “은혜” ●

저희 공동체에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시니와 푸어의 딸 ‘은혜’가 태어났어요.
오랜 진통 끝에 결국은 재왕절개로
3.7kg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열인지 열이 계속 나서 병원에 입원
해 있습니다.수술 후 푸어가 잘 회복되
도록 ‘은혜’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ㄱㄷ부탁드립니다.



아짤미나는 어디에.....??



저는 4월부터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와서 “기초상담학 ” 을 공부하며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에만 열중한 탓인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쉬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뜨거운 열정 가득한 예배를 통해 라오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성령을 느끼며, 닫혀진 나라에서 소리높여 부르지 못하던 찬양을 부르며 소리치며 기도할때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없었던 여러 알러지가 라오스에서 생겼습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못 먹게 됐고 먼지, 햇빛 ... 등등. 밖에 나갔다면 기침, 가래때문에 잠도 못 자서 그 무더운 라오스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밖에 나가야 했는데 이곳에 와서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깜박하고 마스크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걷고 들어왔는데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박~ 코나에 온지 1주일만에 마스크를 벗어버렸습니다!!!

매일 밤마다 알러지약 2알씩 먹어야 기침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고, 아침마다 위장약 2알씩 먹어야 소화를 시켰었는데 이제 알러지약도 위장약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코나에 오기전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서 몇일 머무는 동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청주 상당구호에 선구보고하러 갔다 우리 학생들 한국유학을 논의하러 충북도청에 갔는데 갑자기 4시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2시간의 회의 끝에 우리학생들을 충북도립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프안밋학교에 한국어 어학당을 세우는 일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월이 끝나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갈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손 모아주세요~

돌풍으로 인해 무너지고 훼손된 곳들이 정직하고
실력있는 인부들을 만나서 다시 보수 될 수 있도록
(기숙사 창문들과 지붕, 중고등학교 지붕, 초등학교 지붕 등)

5월은 프안밋 학교의 학기가 마무리 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을 통해 결과를
보고 1년의 학기를 마무리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프안밋 첫 입학생들이 7년간 중고등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드디어 8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첫 졸업생을 축하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의미가 있는 첫 졸업
생들의 미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몇몇 학생들을 한국대학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충북도청과 연결이 되어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
비자 " 를 받아야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올해 3명의
학생을 보내려 하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비자"를 위해 궂부탁드립니다.

